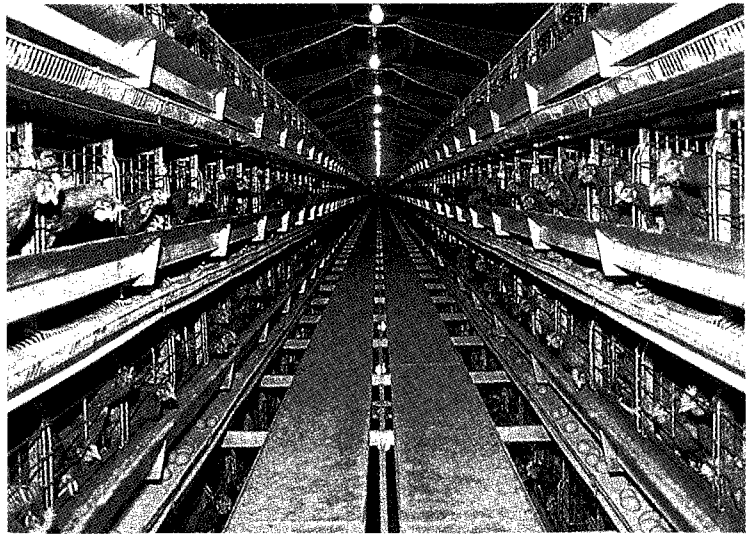


고시가는 높았으나 질병피해로 소득은 낮아져

□ 취재/김동진 기자

1. 금년도 채란업 현황

지난 1997년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경제위기가 결국 11월 국내에 몰아닥치면서 그 여파가 올 한해동안 채란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사료가격 등 원자재비가 50%에 가깝게 폭등하고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채란농가들은 경제난에 휘말렸고,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시설 자동화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정부자금 또는 외환 리스를 사용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리스 상환에 따른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도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란계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지난 1992



년부터 국내에 발병하기 시작한 가금티푸스가 환우와 체중 미달된 닭을 중심으로 더욱 기세를 떨쳐 농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어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다행히 올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난가가 장기간 고가행진을 계속하였고 다운폭도 13원 내외로 비교적 안정

세를 가져오면서 그동안의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실상은 구조조정의 아픔과 가금티푸스의 영향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반기에 들면서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0% 가까이 올랐던 사료가격이 10%

내외로 내려 농가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슈움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환위기 초반에 사료 및 계란가격 정산에 있어서 외상거래가 현금결제로 전환되어 유통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용장 개설 등 사료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서 거래처를 잡기 위한 사료공장들의 경쟁이 다시 심화되어 결제방법이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2. 경기침체의 여파

올해의 계란 생산잠재력은 96억개로 1997년에 비해 11.8%가 증가되어 대대적인 노계도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지난해 3/4분기에 입식된 산란 종계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2/4분기 부터는 상당수의 병아리가 생산되고 이로 인해 올해말에는 계란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도표1〉 산란종계입식 현황 및 계란 생산 잠재력

그러나 때어난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바람과 가금티푸스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예측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경기 침체가 채란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급격한 계란소비 감소를 들 수 있다. 명예퇴직, 부도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어 비공식적으로 나타난 음식업계의 소비는 30~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장에서 계란판매도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계란의 주 소비처인 제빵 제과업체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계란소비를 더욱 위축시켰다.

소비감소의 한 현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영양보다는 보다 싼 가격의 계란을 선

호하면서 6% 이상 차지하던 특수란 소비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특수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둘째, 사료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닭을 굶기는 농장이 있을 정도로 사료의 공급이 원활치 못했고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내는 사태에까지 도달할 만큼 심각해졌다.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사료를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이와 때를 같이해 유통의 혁신을 기하자는 취지 아래 모든 양계산물에 대해 현찰거래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다행히 중반기 이후 환율이 안정되면서 사료가격도 안정

세를 보였지만 언제 다시 외환위기가 닥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셋째, 국내 기자재 경기의 위축이다. 환차손으로 인해 외국 시설 및 기자재 도입이 전면 중단사태를 맞이하였고 국내 시설 경기 또한 위축되면서 이미 시설투자를 계획했던 농가들도 계획을 변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외국 기자재 대리점 직원들이 경기 회복을 마냥 기다리면서 A/S 활동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부 국내 기자재 업체들은 케이지, 집란시설 및 계분 시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외국기자재 업체들과 대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양계장들의 경영부실이 이어졌다. 양계장 자동화 시설을 하면서 리스를 사용한 농가들이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도산이 되었거나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회가 조사한 양계분야 리스 사용 현황을 보면 101,553,390\$로 환율 1,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환차손이 1\$당 550원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리스를 사용한 농가를 중심으로 환율이 1,000\$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금년도 리스자금을 유보하는 내용과 환차손액을 정부 정책자금으로 저리융자(지원)하는 내용이 건의되었으나 전반적인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가 무산되었다.

3. 난가에 의지한 채란업 경영 여전

올 초부터 사료가격 인상과 함께 계란가격도 이에 맞추어 뛰어올라 사상 초유의 가격인 122원에 생산자 가격이 고시되었고 이처럼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노계도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계란값은 설을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X월 대란설 등 유언비어가 만연하면서 다수 계군을 강제 환우를 시켰으며 계획했던 노계도태도 미룸에 따라 2월에 노계가격이 수당 400원에 불과하던 것이 3월들어 급상승되기 시작하여 1,100원까지 거

래되는 등 초반부터 난가에 연연한 무계획적인 경영이 이어졌고, 8월들어 난가가 상승하자 모두 노계를 도태하지 않아 한때 노계가격이 1,800원의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일부 노계 발골업자들이 구매를 못해 도계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이때 높은 가격에 출하된 노계는 농촌지역에 식용으로 공급하는 해프닝까지 이어졌다.

올해 가장 난가가 낮게 형성된 때는 5월 초 특란이 개당 74원까지 하락하였고 특히 7월 중순에는 실거래 가격이 58원 까지 폭락하였다.

당시 다운 폭이 20원 넘게 이루어져 IMF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그동안 버틸대로 버텨온 채란업자들이 일명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계도태를 실시하거나 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나마 여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강제환우에 들어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 6월 한달동안 일시의 계란값 상승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8월에는 108원까지 난가가 치솟았고 다운폭도 10원 내외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때 농장에서 취한 행동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강제환우를 택하였고 7월과 9월의 난가하락을 불러왔다.

외부적인 영향(폭우 및 가금티푸스 등)으로 하반기에 난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한해의 경영은 노계도태의 현명한 판단을 여전히 농쳐버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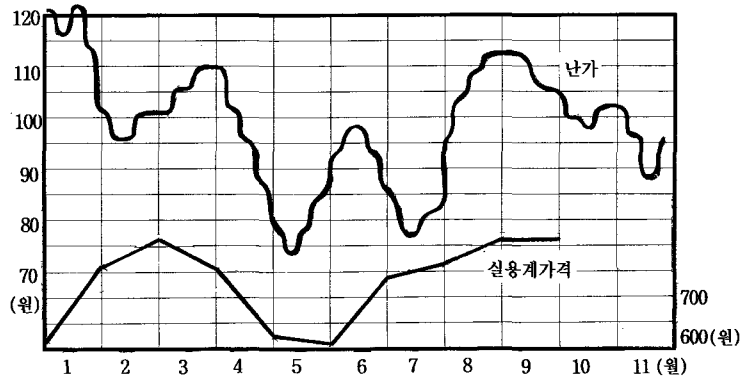
4. 태풍의 눈 가금티푸스!

자연재해와 대책이 없는 질병을 인위적으로 막아내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1904년부터 1997년까지 기상청에서 집계한 우리나라의 1년평균 기상변화를 보면 호우 4.6회, 폭풍 4.4회, 태풍 3회, 폭설 1.8회, 우박 0.9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는 건국 이후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였다.

양계분야에서는 이번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230만수가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힘을 무력화시킨 집중호우는 가금티푸스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하반기



〈도표2〉 '98년도 난가 및 병아리 가격 추이

기 난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가금티푸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질병에 대한 확실한 퇴치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백신제재의 효과도 아직 미흡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농장내 환경이 아직도 불량한 곳이 많은데 있다.

올해에 발생한 가금티푸스의 특징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예년에 비해 겨울에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농가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비교적 방역관리를 잘하는 대규모의 농장에 까지도 발생하여 계란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금티푸스를 근절하기 위

해 정부에서는 백색계 사육권을 들고 나왔으나 일부 군납이외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색계란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백색란 유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가금티푸스 근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자 외국으로 부터 생독백신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백신인 만큼 나라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고 소의 브루세라 질병과 같이 종계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국가 연구기관 및 일반농장에서 충분한 야외실험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었을 경우 수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내년 전반기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계란 소비 및 채란경기 활성화 움직임

4월 이후 난가가 큰 폭으로 하락되고 소비가 위축되자 채란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중 본회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5월부터 9월까지 타 매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려 서울시내 지하철에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이어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까지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큰 효과를 가져왔으며 양계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중간 유통마진을 없앤다는 취지아래 실시된 직거래 장터가 곳곳에 생기면서 축협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공무원이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직접 계란을 홍보, 판매하는 아름다운

풍경도 연출되었다.

산란 증계업자들은 5월들면서 산란병아리 입식 성수기가 지나고 주문에 의한 병아리 생산체계가 무너졌고 800원을 넘던 병아리 가격도 난가와 함께 무너지자 산란실용계 감축만이 이 불황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13개 채란부화장을 중심으로 한달간 병아리 분양을 중단하는 극약처방을 단행하여 평소보다 75%나 적은 물량이 분양되었다.

이때의 병아리 감축효과는 200만수로 공식 집계되었다.

이 영향은 11월 이후부터 잔알에 영향을 미쳐 특란 생산이 본격화되는 3월에는 특란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맺음말

최근에 난가가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운폭도 2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다시 불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런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난가가 하락되면서 노계도태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잔알물량

은 지난 6월 병아리감축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최근의 상황이다.

또한 지난 2/4분기에 입식된 산란실용계는 6,979천수로 전년 같은 기간 9,491천수보다 26.5%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계군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에 가담되는 연말로 갈수록 계란 생산량은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4.3%만이 감소한 산란사료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노계도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난가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의 채란 경기도 소비가 어느정도 살아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들은 앞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계를 도태하는 등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생산량을 줄여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경우 IMF 탈출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